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과 행복

이미애 |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이정용 |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정남숙 |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배경과 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위기의 심화는 인구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 기존 저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나 ‘영유아기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양육의 주체인 ‘엄마·아빠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전환 필요
- 인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가족정책 및 돌봄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실제 느끼는 삶의 만족도, 양육의 어려움, 정책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재
- 이에 따라, 인천서베이, 사회조사, FGI 등 다양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의 실태와 행복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양육 및 돌봄 정책 방향 제시

정책제안

-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아빠의 삶에 얽힌 경제, 돌봄, 주거, 일, 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은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한 ‘엄마·아빠가 행복한 도시 구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첫째, 미래 자녀 계획과 현재 양육의 최대 장애물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드림** 정책을 중심으로 돌봄 및 교육 비용과 주거 안정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육 기반 마련
- 둘째, 엄마에게 편중된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빈틈없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엄마·아빠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보장
- 셋째, 엄마·아빠가 양육으로 겪는 정신적·관계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엄마·아빠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서·돌봄 공동체 조성

1 인천시, 엄마·아빠 현황과 자녀 인식

■ 출산과 영유아 자녀 가구의 변화

-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천시는 수도권 및 전국 평균에 비해 감소 폭이 낮고 다소 상승 기류를 보임
 -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이었으나 2018년 0.977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 0.748명
 - 인천시는 2000년 1.473명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하고 2019년 0.94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 0.694명, 2024년 0.762명으로 다소 상승
- 인천시 10개 군·구의 경우 강화군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며, 서구, 중구, 연수구 등 신도시 지역이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 강화군은 인천시 10개 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으며, 2000년 1.457명에서 2024년 1.062명으로 1명을 유지
 - 2024년 기준, 동구, 옹진군을 제외하고 인천시 8개 군·구의 합계출산율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구,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

[표 1] 합계출산율 변화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전국	1.480	1.085	1.226	1.239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721	0.748	-2.8
서울시	1.275	0.932	1.015	1.001	0.940	0.836	0.761	0.717	0.642	0.626	0.593	0.552	0.581	-3.2
경기도	1.628	1.183	1.309	1.272	1.194	1.069	1.002	0.943	0.878	0.853	0.839	0.766	0.789	-3.0
인천시	1.473	1.075	1.214	1.216	1.144	1.007	1.006	0.940	0.829	0.778	0.747	0.694	0.762	-2.7
중구	1.375	1.154	1.300	1.299	1.190	1.047	1.018	0.993	0.816	0.822	0.803	0.764	0.843	-2.0
동구	1.134	0.994	1.253	1.325	1.185	1.039	1.005	0.995	0.697	0.688	0.679	0.775	0.730	-1.8
미추홀구	1.314	0.970	1.146	1.127	1.068	1.027	0.951	0.878	0.798	0.713	0.673	0.659	0.753	-2.3
연수구	1.424	1.072	1.207	1.215	1.135	1.064	1.059	1.013	0.946	0.902	0.850	0.734	0.811	-2.3
남동구	1.535	1.027	1.211	1.240	1.163	1.008	1.006	0.915	0.808	0.723	0.663	0.592	0.602	-3.8
부평구	1.446	1.084	1.168	1.177	1.113	0.977	0.954	0.839	0.713	0.667	0.675	0.637	0.738	-2.8
계양구	1.658	1.115	1.244	1.126	1.047	0.882	0.904	0.829	0.669	0.685	0.626	0.550	0.571	-4.3
서구	1.610	1.201	1.329	1.350	1.280	1.058	1.119	1.077	0.950	0.893	0.867	0.820	0.900	-2.4
강화군	1.457	1.197	1.177	1.081	1.114	0.989	1.064	1.251	1.312	1.166	1.126	1.043	1.062	-1.3
옹진군	2.152	1.239	1.569	1.339	1.395	1.186	1.341	1.293	1.125	1.050	0.995	0.884	0.810	-4.0
광역시 평균	1.476	1.060	1.194	1.257	1.201	1.073	0.991	0.930	0.831	0.823	0.794	0.728	0.758	-2.7
도 평균	1.645	1.220	1.407	1.417	1.343	1.219	1.136	1.075	0.994	0.937	0.896	0.847	0.869	-2.6

참고: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는 2016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도 전국 평균 대비 감소 폭은 적으나 비슷한 추이를 보임
 - 인천시의 경우 2016년 122,962가구에서 2024년 82,013가구로 연평균 -4.9% 감소하였으나, 전국(-5.7%) 대비 감소 폭은 적음
 - 영유아 자녀 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자녀가 2명, 3명 이상을 둔 가구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인천시 기준, 자녀 1명인 가구의 비중은 2016년 44.8%에서 2024년 53.5%로 증가한 반면, 자녀가 2명, 3명 이상 가구는 2016년 43.9%, 11.3%에서 2024년 38.24%, 8.3%로 감소

[표 2] 인천시 영유아 자녀 가구의 변화

(단위: 가구, %)

구분		2016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전국	전체	2,055,585	1,884,247	1,688,890	1,565,875	1,448,835	1,355,728	1,284,158	-5.7
	1명	911,876 (44.4)	858,600 (45.6)	793,307 (47.0)	749,533 (47.9)	713,783 (49.3)	690,966 (51.0)	677,127 (52.7)	-3.7
	2명	907,476 (44.1)	821,521 (43.6)	722,333 (42.8)	660,313 (42.2)	597,484 (41.2)	542,883 (40.0)	498,702 (38.8)	-7.2
	3명 이상	236,233 (11.5)	204,126 (10.8)	173,250 (10.3)	156,029 (10.0)	137,568 (9.5)	121,879 (9.0)	108,329 (8.4)	-9.3
인천	전체	122,962	111,223	97,827	91,080	86,311	83,483	82,013	-4.9
	1명	55,070 (44.8)	51,648 (46.4)	46,557 (47.6)	44,424 (48.8)	43,227 (50.1)	43,248 (51.8)	43,892 (53.5)	-2.8
	2명	54,005 (43.9)	47,647 (42.8)	41,355 (42.3)	37,714 (41.4)	34,970 (40.5)	32,886 (39.4)	31,292 (38.2)	-6.6
	3명 이상	13,887 (11.3)	11,928 (10.7)	9,915 (10.1)	8,942 (9.8)	8,114 (9.4)	7,349 (8.8)	6,829 (8.3)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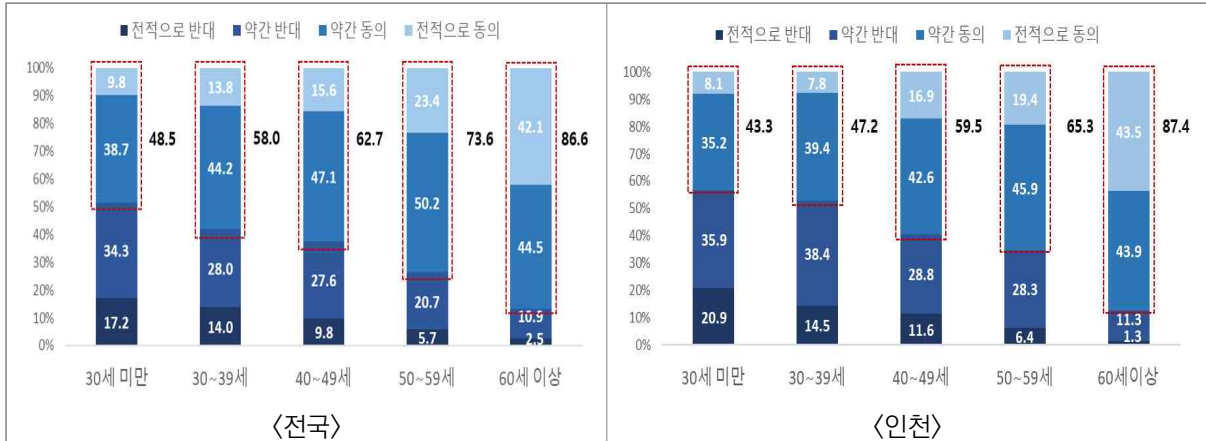
주 : 영유아 자녀 가구: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자녀에 관한 인식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2024)」 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은 30대 미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인식
 - 전국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 30대 미만 48.5%, 30대 58%, 40대 62.7%, 50대 73.6%, 60대 이상 86.6%로 높아짐
- 인천시의 경우에도 자녀에 관한 인식이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거나, 전국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인천시 30대 미만 43.3%, 30대 47.2%, 40대 59.5%, 50대 65.3%, 60대 이상 87.4%

- 인천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등 전 연령층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대비 낮음

[그림 1] 연령별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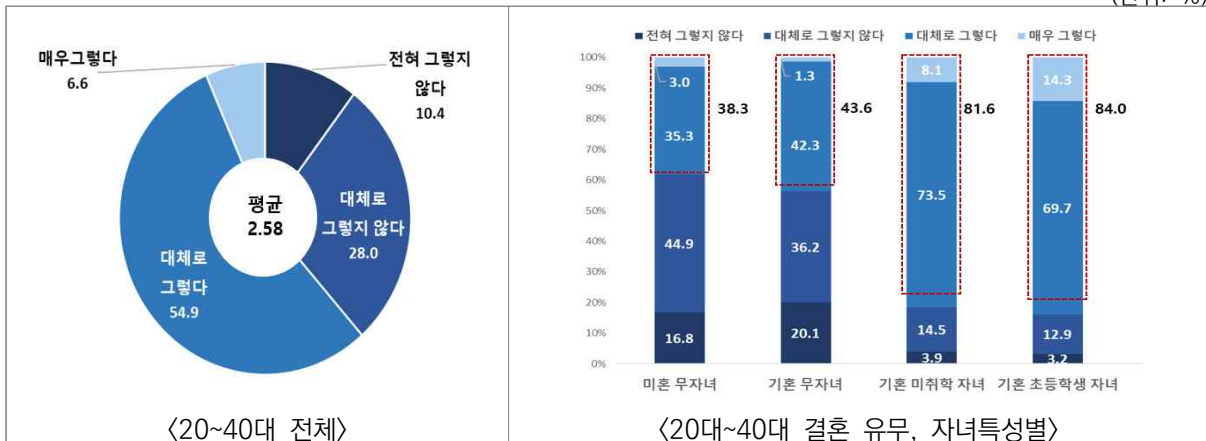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의 사회동향 2024」, 통계청

- 인천서베이(2024) 조사 결과, 20~40대 인천시민의 자녀에 관한 인식을 결혼 유무와 자녀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61.5%가 긍정적으로 생각, 기혼자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더 긍정적으로 생각
- 기혼이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 84.0%, 기혼이며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81.6%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기혼이며 무자녀인 경우 43.6%, 미혼이며 무자녀인 경우 38.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임

[그림 2] 결혼 및 자녀 특성별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20대~40대 인천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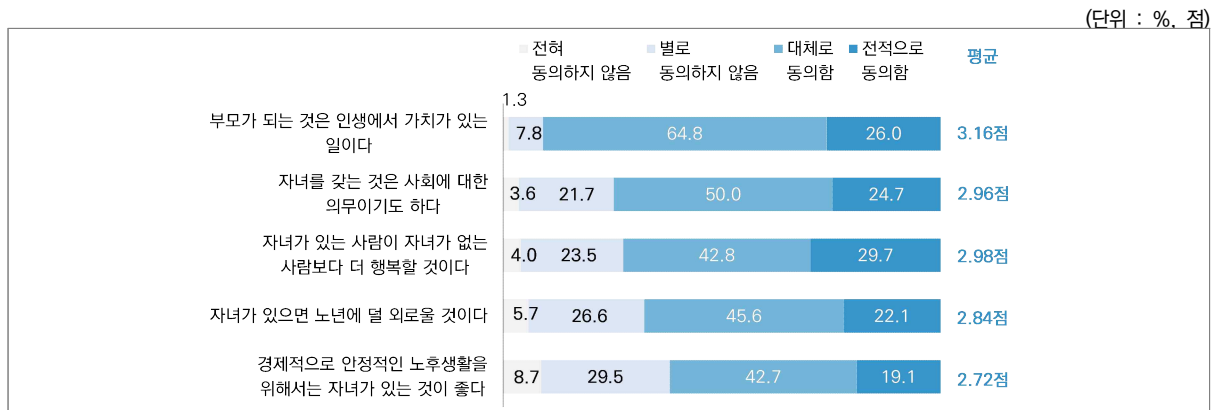
(단위: %)



주 : 인천시민 중 20대~40대 응답자 대상, 응답자수: 1,148명
 자료: 인천서베이(2024)

- 자녀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항목이 평균 3.16점(4점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2.98점),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2.96점),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로울 것이다’(2.84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2.72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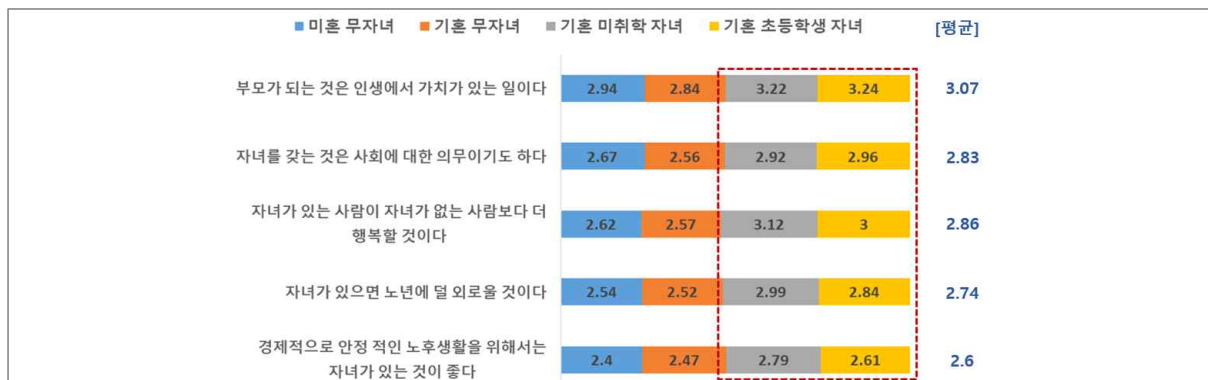
[그림 3] 자녀에 대한 견해



주 : 4점 기준, 인천 시민 대상 응답자수 2,219명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20대~40대 인천 시민이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견해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항목별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남
 - 자녀에 대한 견해에 있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평균 3.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2.86점).”,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2.83점) 순으로 나타남
 - 결혼 유무 및 자녀 특성별로는 각 항목별 모두,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는 미혼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4] 자녀에 대한 견해: 결혼·자녀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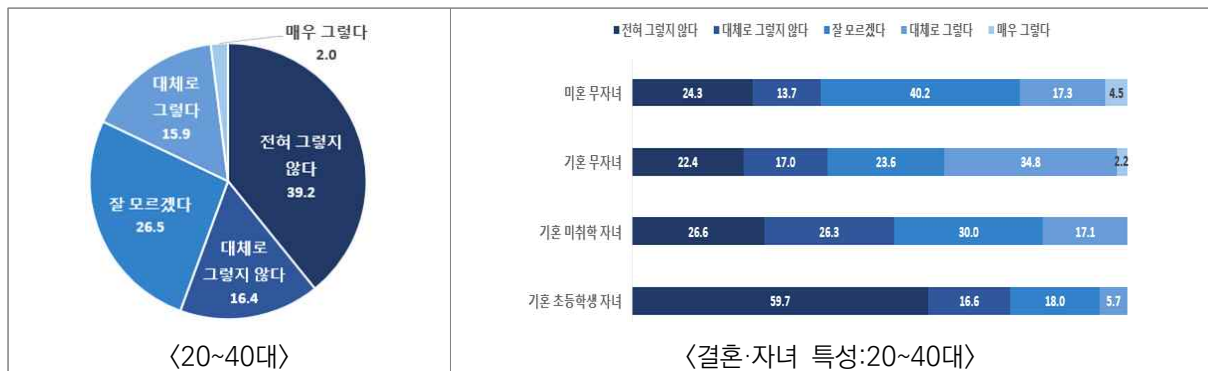
주: 4점 기준, 인천시민 중 20대~40대 응답자 대상, 응답자수 1,148명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인천시민 대상 FGI 조사 결과¹⁾, 자녀가 삶의 의미와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희생과 부담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남
 - 미혼자들은 자녀를 가지는데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며,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경우가 많음
 - 기혼자들은 자녀를 통해 얻는 행복과 성취감을 높게 평가하지만,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시간적 제약, 그리고 개인적 희생이 자녀 계획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어요”(미혼, 남, 27). “자녀가 없어도 노년을 외롭게 보내지 않을 방법은 많다고 생각해요”(미혼, 여, 34)
-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녀를 안 낳는다고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기혼, 남, 32). “자녀양육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기혼, 남, 35). “아이를 키우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요. …”(기혼, 여, 30)

- 20대~40대 인천시민의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17.9%가 향후 자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5.6%는 자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유무 및 자녀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혼이면서 무자녀인 경우(37.0%), 미혼이면서 무자녀인 경우(21.8%), 기혼이며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17.1%), 기혼이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5.7%) 순으로 자녀 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향후 자녀 계획: 20대~40대 응답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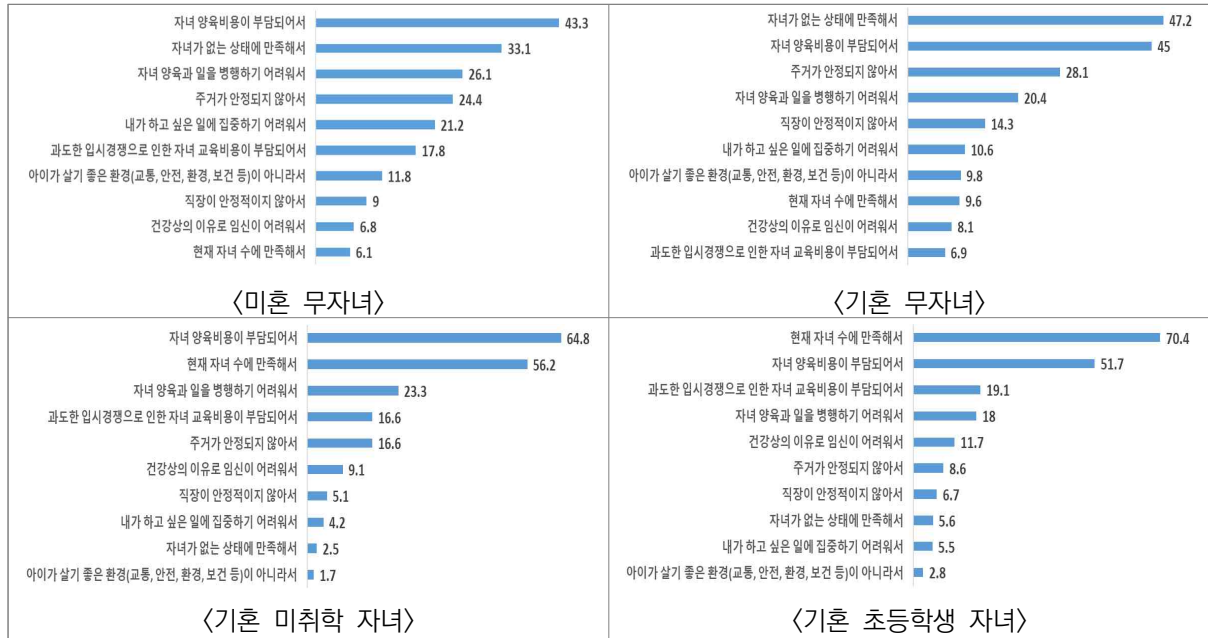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 이유에 대해 기혼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현재 자녀수에 만족해서”와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서”가 가장 많으며, 기혼이며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없는 상태에 만족해서”와 “자녀양육 비용이 부담되서”가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자녀교육 비용이 부담’,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나타남

1) 2024년 인천시 저출산 관련 시민 FGI는 인천시 거주 20~40대 남녀 시민, 4그룹(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미취학 자녀, 기혼 초등학교 자녀) 총 26명을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 반면, 미혼의 경우는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등이 이유로 나타났으며, 기혼 무자녀의 경우는 주거가 안정되지 않아서,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등이 이유로 나타남

[그림 6]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 20~40, 자녀 특성(1순위+2순위)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FGI 조사 결과, 자녀 양육비 부담,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과중한 육아 책임,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딥크를 선호하는 의견이 지배적임
-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부족,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과도한 교육 부담이 기피 요인

•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포기하는 거죠”(기혼, 여, 39). “자녀 양육비용이 저한테 제일 큼니다”(기혼, 남, 32). “집을 사야 아기를 낳지 않을까요?”(기혼, 여, 26). “아기를 케어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거나 육아휴직할때도 눈치가 보일 수 있고 …”(기혼, 여,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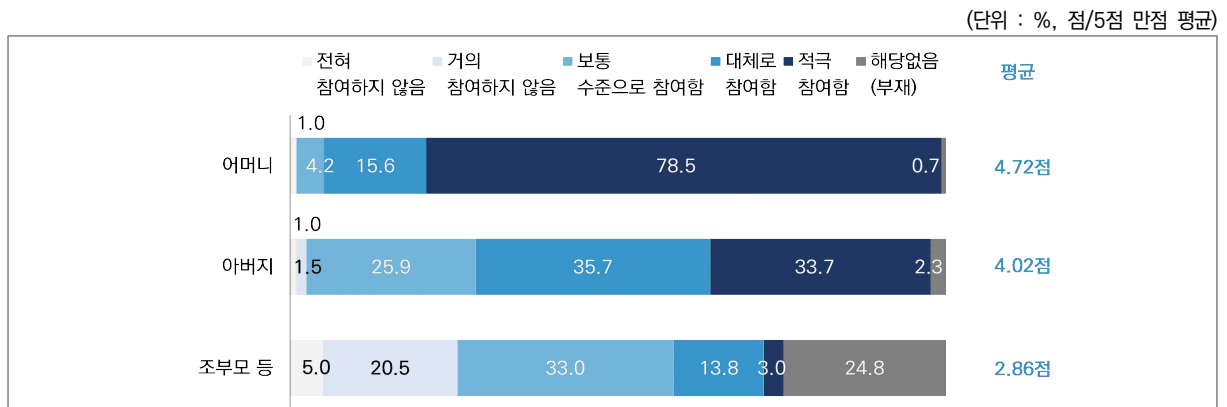
2 인천시, 엄마·아빠의 자녀돌봄: 가정생활

■ 엄마·아빠의 자녀돌봄 참여도

-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에서 평소 자녀 돌보기(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어머니(4.72점)’, ‘아버지(4.02점)’, ‘조부모(2.86점)’ 순으로 나타남

- 엄마 94.1%, 아빠 69.4%, 조부모 등 16.8%가 자녀돌봄에 상당 부분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조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도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과 가사의 분담 비중을 살펴보면, 엄마와 아빠 모두 양육과 가사에 있어 엄마의 분담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함

- 양육의 분담 비중은 엄마는 본인(68.9%), 배우자(23.1%), 조부모 등(8.1%)로 생각, 아빠는 본인(34.2%), 배우자(58.8%), 조부모 등(6.9%) 순으로 생각함

- 가사의 분담 비중은 엄마는 본인(68.6%), 배우자(26.4%), 조부모 등(5.0%)로 생각, 아빠는 본인(35.8%), 배우자(60.3%), 조부모 등(4.0%) 순으로 생각함

[그림 8] 자녀·손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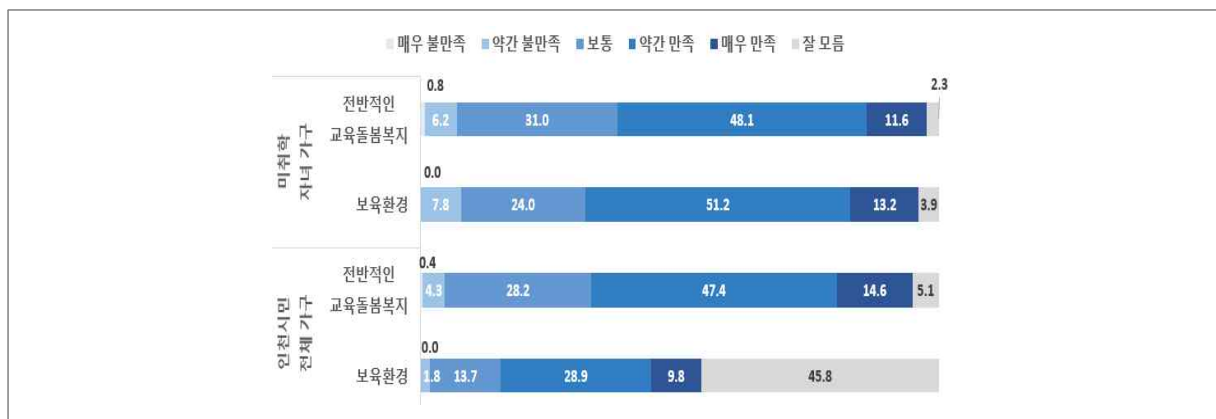
주 : 미취학 자녀 돌보기를 참여하는 보호자 대상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거주 지역의 교육·돌봄·복지 환경

- 거주 지역의 보육환경(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돌봄·복지 환경은 일반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보육환경(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해 미취학 자녀 가구는 64.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45.8%로 높은편임
 - 전반적인 교육·돌봄·복지 환경에 대해서는 미취학 자녀 가구는 59.7%가 만족, 일반 가구는 62.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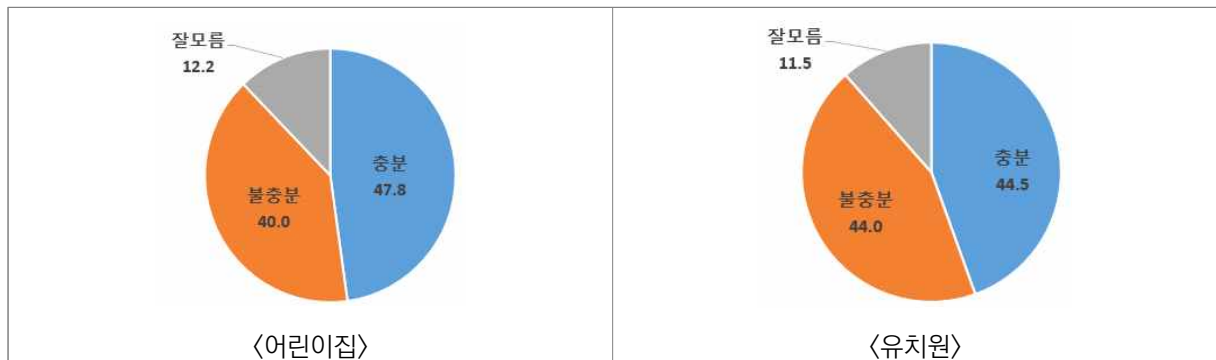
[그림 9] 보육환경(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프로그램 등) 및 교육·돌봄·복지 만족도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다만,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기관 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은 47.8%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반면, 40.0%는 부족하다고 생각, 유치원은 44.5%가 충분, 44.0%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림 10]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유치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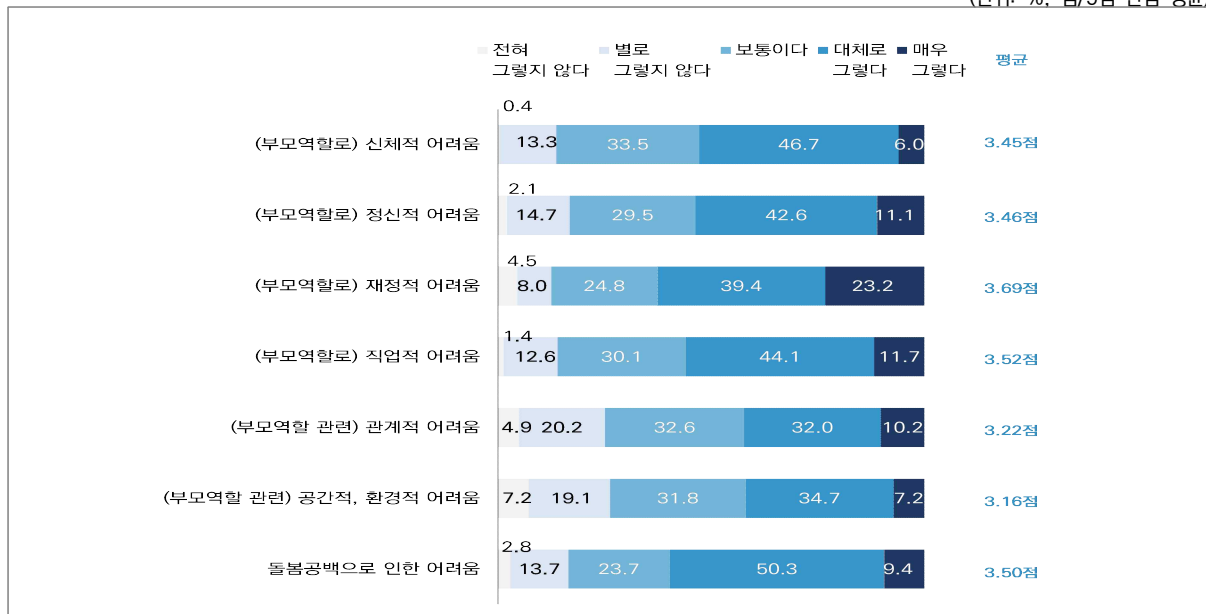
주 : 미취학 자녀 가구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엄마·아빠로서 겪는 어려움

- 엄마·아빠로서 겪는 어려움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3.69점(5점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2.6%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직업적 어려움(3.52점)',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3.50점)', '정신적 어려움(3.46점)', '신체적 어려움(3.45점)', '관계적 어려움(3.22점)', '공간적·환경적 어려움(3.16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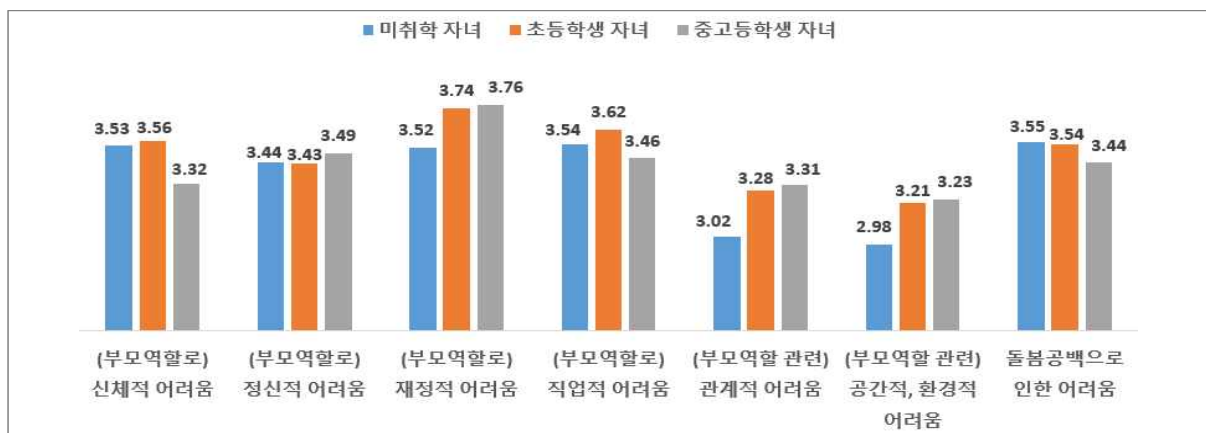
(단위: %, 점/5점 만점 평균)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자녀특성별 엄마·아빠로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자녀가 어릴수록 신체적, 직업적,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반면, 자녀가 클수록 정신적, 재정적, 관계적, 공간적·환경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특성별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FGI 조사 결과, 육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지만, ‘경제적·심리적 부담과 육아 환경의 한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음
 -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비 부담’과 ‘믿을 수 있는 보육기관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육아휴직 등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을 제기함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학령기에 따른 ‘교육비 부담’, 자녀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면서 ‘체력적·심리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육아 지원 체계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함

- (기관 및 돌봄 이용의 어려움) “선생님들은 5시 반쯤 되면 퇴근 하시고 아이들은 이미 5시쯤 됐을 때 학원을 다 가니깐 제가 늦게 가면 5시 반쯤되는데 아이들이 몇 명 없는 거죠”(기훈, 여, 39). “늘봄을 잠깐 보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없더라고요. 약간 시간 때우는 느낌이고 아이가 그 시간에 하는 건 없고 책읽기 정도밖에 없었어요”(기훈, 여, 38).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기훈, 여, 47)
- (시간적·체력적 어려움)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일단 두명이서 아이를 케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거 같아요”(기훈, 여, 44). “일과 육아를 멀티로 해야 되는게 힘들고 밤에 제대로 잠 못자고 하는게 제일 힘들죠”(기훈, 남, 38).
- (경제적 어려움) “정말 엄청 많죠. 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정도면 중고등학교는 더 심하고…”(기훈, 남, 41). “결혼 안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기훈, 남, 47).

3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과 행복: 개인의 삶과 행복

■ 엄마·아빠의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

- 인천시민의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의 삶의 만족과 행복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의 행복 수준은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가 81.5%, 그 외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가구 73.0%로 나타남
 -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있어서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는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 91.0%, 그 외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가구 84.0%로 나타남

[그림 13] 전반적 삶의 만족과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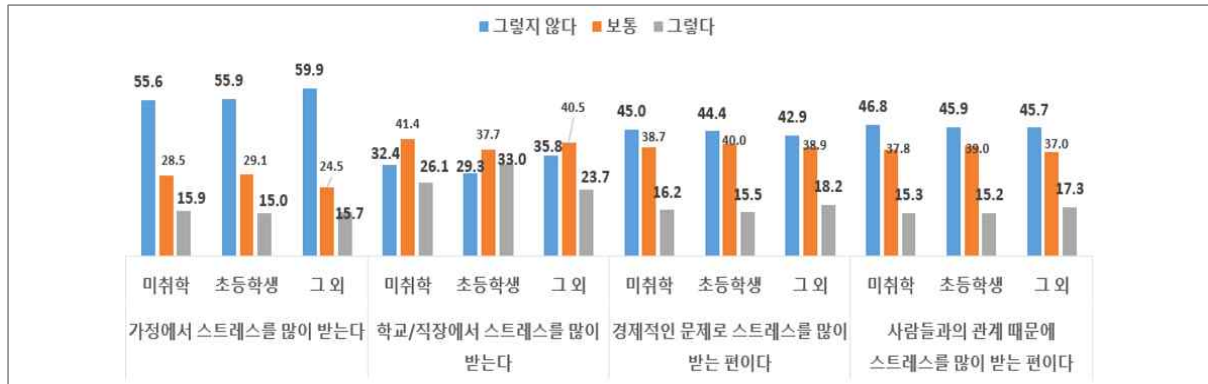


주 : 그 외-미취학,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자료: 인천사회조사 2024

■ 평상시 스트레스 요인

- 평상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제적인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가구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스트레스는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경우 15.9%(15%), 26.1%(33.0%)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엄마·아빠는 15.7%, 23.7%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인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경우 16.2%, 15.3%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그 외 집단은 18.2%, 17.3%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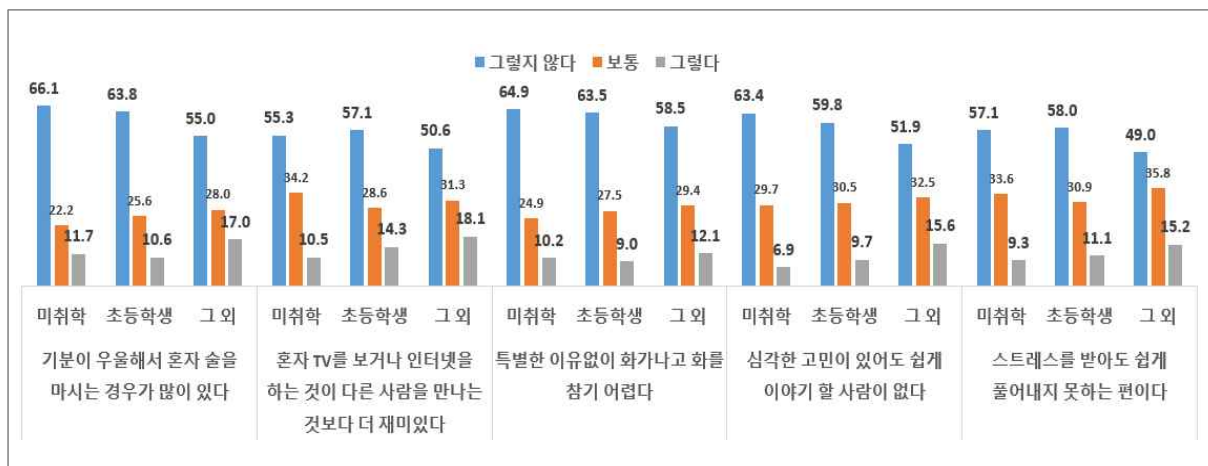
[그림 14] 평상시 스트레스 요인



주 : 그 외-미취학,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자료: 인천사회조사 2024

- 또한,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보다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 나고 화를 참기 어려운 경우,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 할 사람 없는 경우,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엄마·아빠가 더 높게 나타남
 -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17.0%인 반면,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의 경우는 11.7%, 10.6%임
 -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10.5%, 14.3%)보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 18.1%로 더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미취학·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는 9.3%, 11.1%인 반면, 그 외 집단은 15.2%로 더 높은 수준임

[그림 15] 평상시 스트레스 요인



주 : 그 외-미취학,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자료: 인천사회조사 2024

- FGI 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안정, 자기 계발, 건강 등 개인적인 요인’과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적 요인’, ‘주거·직업 안정성과 공공 서비스 지원 같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만족 요인은 ‘성취감, 경제적 안정, 개인시간 확보, 건강 등 개인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며, 불만족 요인은 ‘재정적 불안정, 시간 부족, 육아 스트레스, 직업 불안정, 건강 문제 등’으로 나타남

- (개인적 요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요”(미훈, 남, 37). “주말부부로 각자의 시간이 보장돼 만족도가 높음”(기훈, 남, 33).
- (관계적 요인) “남편과 서로 의지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만족감을 준다”(기훈, 여, 36). “아이의 예쁜 시기를 경험하며 행복하다”(기훈, 여, 35).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이라는 삶의 목표가 만족감을 준다”(기훈, 남, 41).
- (사회적 요인) “단축근무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보람을 느낀다”(기훈, 여, 35).
- (불만족 요인) “대출금을 갚으며 가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있지만 부담이 크다”(기훈, 남, 41). “맞벌이와 육아 병행으로 일상이 바쁘고 힘들다. 평일에는 너무 바빠서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기훈, 여, 39). “미래의 경제적 안정이 불확실하다”(미훈, 남, 35). “건강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기훈, 남,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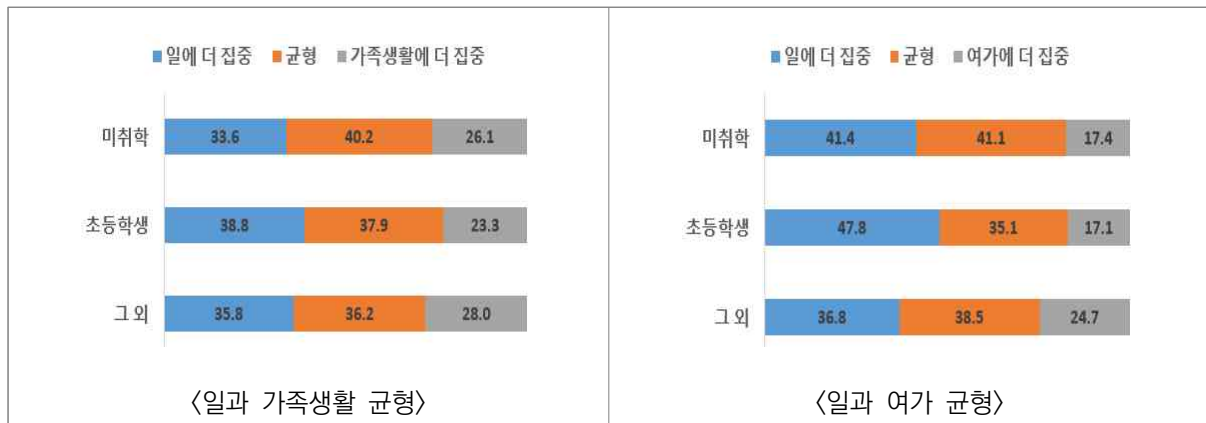
- 행복의 주요 원천은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의 화목’이며, ‘배우자 및 자녀와의 친밀감’에서 큰 행복을 느낌
 - ‘결혼, 출산, 육아는 배우자와의 안정감,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보람,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느끼는 보람과 만족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남편과 둘이 의지하게 되고 그런것들이 만족감을 줘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기훈, 여, 36). “아이의 예쁜시기를 경험하며 행복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이 크다”(기훈, 여, 35).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자녀와 관계에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크다”(기훈, 여, 34).

■ 일과 가족생활, 여가생활 균형

- 일과 가족생활 간 균형에 있어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더 일과 가족생활을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40.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37.9%),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가구(36.2%) 순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에 있어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일과 여가생활을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41.1%),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가구(38.5%),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35.1%) 순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를 비교하면, 자녀가 어릴수록 일과 가족생활, 일과 여가생활을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으며, 자녀가 클수록 일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40.2%, 41.1%)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37.9%, 35.1%)보다 더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음
 -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33.6%, 41.4%)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38.8%, 47.8%)가 일에 더 집중하는 비중이 높음

[그림 16] 일과 가족생활, 여가생활 균형



주 : 그 외-미취학,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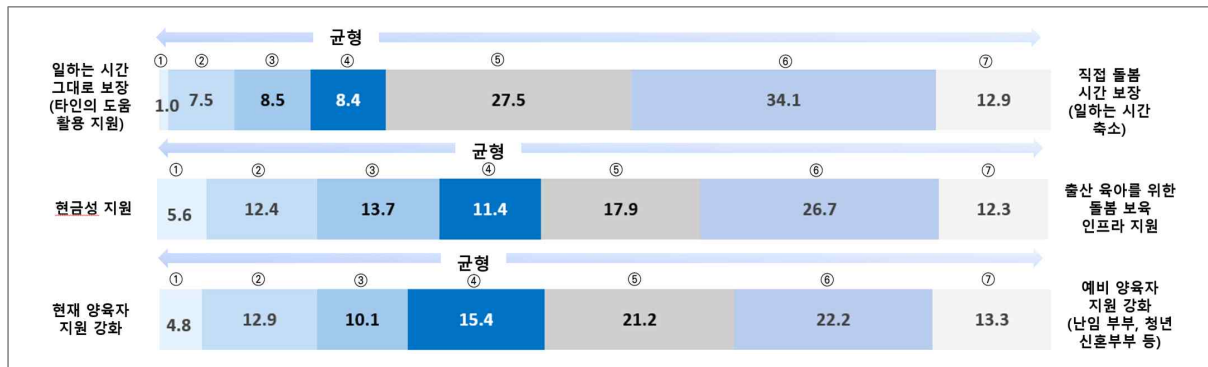
자료: 인천사회조사 2024

4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과 행복을 위한 정책 제언

■ 인천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도시 구현

- 인천서베이 조사결과,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과 행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첫째,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20~40대의 55.6%가 향후 자녀 의향이 없으며, 자녀계획이 없는 이유는 자녀없는 상태의 만족,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주거 불안정,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남
 - 둘째, 돌봄 구조의 불균형으로 미취학 자녀 돌봄의 엄마 비중이 압도적이며, 가사·돌봄 분담에서도 엄마가 약 70% 이상 부담
 - 셋째, 엄마·아빠의 어려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크며, 직업적, 돌봄 공백, 정신적 어려움 등이 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신체적·직업적 부담이 크고, 자녀가 클수록 재정적·관계적·정신적 부담이 큼
 - 넷째, 행복과 삶의 만족은 자녀가 있는 엄마·아빠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며, 스트레스, 우울, 감정노동에서도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남
- 또한, 육아기에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돌봄 시간 보장, 돌봄·육아 인프라 지원, 예비 양육자 지원 강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봄
 - 일하는 시간 보장(17.0%)과 직접 돌봄 시간 보장(74.6%) 중에는 직접 돌봄 시간 보장, 현금성 지원(31.7%)과 돌봄·보육 인프라 지원(56.9%) 중에서는 돌봄·보육 인프라 지원, 현재 양육자 지원(27.8%)과 예비 양육자 지원(56.7%) 중에서는 예비 양육자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봄

[그림 17]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부분



자료: 인천서베이 2024

- FGI 조사 결과, 현재 정부와 인천시 정책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접근과 단기적, 일회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

- 특히, 주거 안정, 일자리 보장, 돌봄 인프라 부족, 시민 의식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결국, 단순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전환이 요구됨

[표 3] 인천시 FGI 조사 결과: 그룹별 정책 방향

구분	핵심 내용
미혼 그룹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주거 환경 부족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동기 부여 부족 • 청년층 대상의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 보장 정책의 구체성 부족 • 결혼 준비 및 초기 육아비용 부담으로 결혼 의사 취약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라밸 중심 정책]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지원 필요 • [주거 안정성 확보] 공공임대 확대와 임차 환경 안정화를 통한 결혼 장려책 강화 • [직접 지원 강화] 주거비 및 초기 육아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해소 소구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를 포함한 주거 안정화 정책 • [일자리-소득 연계 보장 제도] 청년 고용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초기 출산 및 육아비용 지원 홍보 강화]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홍보 강화
기혼 무자녀 그룹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내 문화적 장벽 존재 • 안정적인 주거 환경 부족으로 경제적 스트레스 지속 • 양질의 보육 시설 부족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지속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의무화] 근로자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의무화가 중요함 • [직장 내 육아 지원] 직장 문화에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인 임차 환경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요구 • [지역사회 돌봄 강화] 커뮤니티 기반 돌봄 서비스 활성화로 육아 지원 필요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권리 강화 및 장려 정책] 육아휴직 의무화 및 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성 확대 • [주거 안정성 강화 정책] 신혼부부 및 젊은 가구 대상 맞춤형 임대 지원 확대 • [믿을 수 있는 기관 보육 네트워크 구축] 공공/민간 보육 시설의 질적 개선과 접근성 강화
기혼 취학전 자녀 그룹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부담 지속 •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둘째 출산 고려 어려움 • 긴급 돌봄 서비스의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대응 어려움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돌발 상황에 대비한 유연한 돌봄 시스템 필요 • [기관 보육 및 돌봄 지원 강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지원 확대 필요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양육비 지원 확대] 출산 및 양육 초기 단계의 전폭적 지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비용 감면 정책]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 •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지역 단위의 긴급 돌봄 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기혼 초등 자녀 그룹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비 지원 부족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 •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자녀 양육에 적합한 주거 환경 마련 필요 • [교육비 지원 확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 필요 • [생활 환경 개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경감 정책 강화] 초등학교 교육비와 학원비 지원 확대 • [생활 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역 사회 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확대] 세제 혜택 및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강화

자료: 인천연구원(2024). 2024년 인천시 저출산 관련 시민 FGI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아빠의 삶에 구조적 문제는 경제적, 돌봄, 주거, 일, 정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이며, 단일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도시”가 구현되어야 함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가 아닌 엄마·아빠가 행복한 도시가 구현되어야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회복 가능

■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양육 기반 마련

- 엄마·아빠들이 미래 자녀 계획을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며, 현재 엄마·아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재정적 어려움”임
- 현재 인천시 **이·박드림**에 기반한 전 생애주기 양육 경제 안심망 구축을 통해 현재 실질적 비용 부담 경감과 미래 자산 형성을 동시 추구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이·박드림** 정책을 중심으로 초등돌봄 및 교육 비용이 급증하는 시기의 지원 강화, 육아비용 경감 정책, 다자녀 및 예비 부모 가구에 대한 주거 금융 지원 등 양육과 주거 안정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빈틈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엄마·아빠의 일과 가정생활 균형 보장

- 자녀 양육에 있어 엄마에게 편중된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 직업적 어려움 등 구조적 해결을 위해 부모 모두가 일과 육아를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의 구축 필요
- 빈틈없는 돌봄 실현을 위해 영유아·초등 전환기 등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시설 확충 중심에서 서비스 질·접근성 중심으로 전환, 민간·공공 돌봄 자원의 네트워크 등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개선
- 나아가 아빠 육아 인센티브, 가족 친화 기업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성평등한 공동 육아 문화를 인천시 차원에서 확산시켜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

■ 엄마·아빠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서·돌봄 공동체 조성

- 자녀 양육으로 인해 엄마·아빠가 겪는 정신적, 관계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아이의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는 원칙 아래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엄마·아빠 마음 돌봄 바우처 등 양육 스트레스 전문 상담 서비스, 동네 생활권 중심의 공동 육아 나눔터, 가족 쉼터 등 부모들이 휴식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형 정서 돌봄 플랫폼 마련

◆ 참고문헌

[보고서]

- 인천광역시. (2024). 2024 인천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 인천연구원. (2024). 2024년 인천서베이
- 인천연구원. (2024). 2024년 인천시 저출산 관련 시민 FGI(Focus Group Interview)
- 통계청, 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
-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동향 2024
- 통계청. (2024). 2024년 12월 인구동향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최계운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